



## 언제 어디서나 겪는 불평등: 전국 트랜스젠더 차별 설문조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남아시아인, 동남아시아인, 태평양 제도 거주 응답자에 대한 고찰

전국 트랜스젠더 차별 설문조사[NTDS]는 6,456명의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미국에서 겪는 차별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트랜스젠더와 성 비순응자가 그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실제로 끊임없는 차별에 직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트랜스젠더를 반대하는 편견이 구조적이고 개인적인 대인관계에 관련된 인종 차별과 결합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 남아시아인, 동남아시아인, 태평양 제도민(API)을 포함하여 유색 인종의 트랜스젠더와 성 비순응자가 특히 파괴적인 수준의 차별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전국 퀴어 아시아 태평양 제도민 연합[NQAPIA]은 트랜스젠더 평등을 위한 전국 센터[NCTE] 및 전국 동성애자 대책 위원회와 협조하여 API 트랜스젠더와 성 비순응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자신을 “아시아 또는 태평양 제도민”이나 “복합인종 아시아 또는 태평양 제도민”이라고 밝힌 212명의 경험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API 응답자 중, 84%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16%가 비시민권자입니다.<sup>i</sup> 이를 다른 범주와 비교하면 미국 내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API 인구의 경우 시민권자가 71%이고 비시민권자가 29%입니다.

유감스럽게도 API 이민 응답자의 수는 유의미한 분석을 하기에 충분한 숫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NTDS 보고서 전문에서 비시민권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API 비시민권자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보고서에 “편견 때문에”라는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트랜스젠더를 반대하는 편견을 겪은 응답자의 경험에 관해 묻는 설문조사의 질문을 가리키지만 결과는 이러한 편견이 인종, 이민 지위, 언어 능력, 사회 경제적 지위와 복잡하게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주요 조사 결과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는 극빈층인 경우가 적지 않아 18%가 연간 가계 수입이 1만 달러 미만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모든 인종의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비율(1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API 인구에서 보인 비율(3%)의 여섯 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미국 인구에서 보인 비율(4%)의 네 배가 넘습니다.<sup>ii</sup>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는 상당수가 HIV를 앓고 있습니다. 거의 5%가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추가적으로 10.48%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다른 범주와 비교하면 모든 인종의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경우 그 비율이 2.64%이며 일반 API 인구의 경우는 0.01%이고 일반 미국 인구의 경우는 0.60%입니다.<sup>iii</sup>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사십사 퍼센트(44%)가 가족 수용도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는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가족의 수용을 받은 응답자는 차별에 직면하는 경우가 훨씬 적었습니다.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오십육 퍼센트(56%)가 차별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교에서의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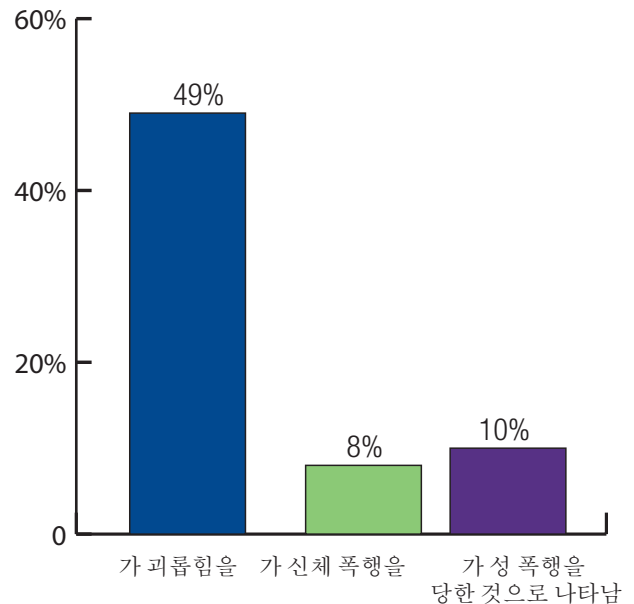
-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성별 관행 거부를 밝힌 12학년 학제에 재학 중인 API 응답자는 괴롭힘(65%), 신체 폭행(39%), 성 폭행(19%)을 당했다는 우려할 만한 비율을 보고했고, 괴롭힘이 심해서 11%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육 퍼센트(6%)는 편견 때문에 퇴학당했습니다.
- 12학년 학제에서 교사에 의해 괴롭힘이나 학대를 받은 응답자는 이와 같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건강 상태와 기타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료간 괴롭힘과 학대도 매우 큰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성전환을 밝힌 재학 중인 API 응답자의 65%가 괴롭힘에 직면해 있습니다.

## 직장에서의 차별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는 12%라는 매우 높은 실업률을 보였는데, 이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기에 일반적인 인구의 실업률(7%)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sup>iv</sup>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이십일 퍼센트(21%)가 편견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41%가 편견 때문에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사십구 퍼센트(49%)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8%는 신체 폭행을 당했고, 10%는 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이십삼 퍼센트(23%)는 수입을 위해 마약 판매 또는 매춘을 강요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로 막대 그래프



## 거주지 및 노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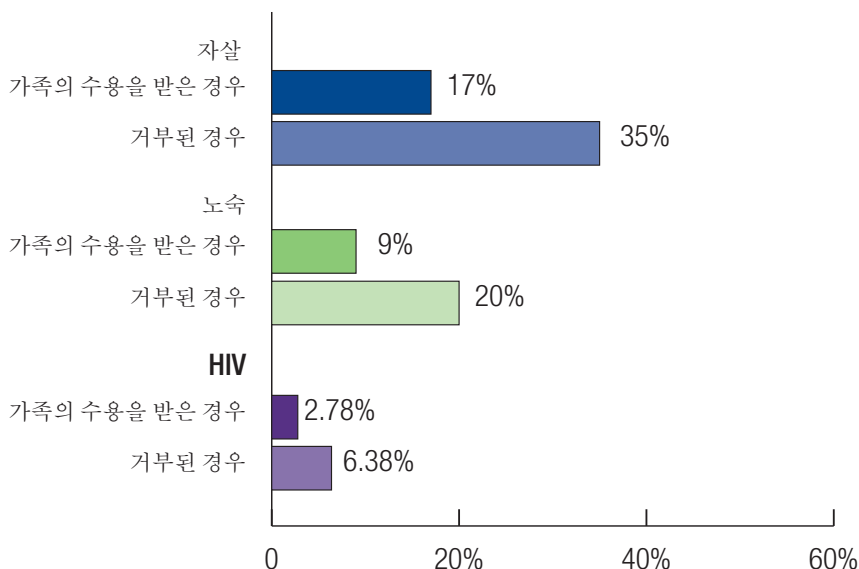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는 직접 거주지에서 여러 형태의 차별을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21%는 편견 때문에 개인주택 또는 아파트 입주를 거부당한 적이 있고 7%는 편견 때문에 퇴거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십사 퍼센트(14%)는 노숙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 수치는 일반적인 미국 인구에서 보인 비율(7.4%)의 거의 두 배에 이릅니다.<sup>v</sup>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는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18%로 다른 인종의 응답자에 비해 낮았습니다. 다른 범주와 비교할 때 모든 인종의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경우 32%를, 일반적인 미국 인구의 경우 67%를 보였습니다.<sup>vi</sup> 또한 비교를 위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국의 “소수 민족 주택 소유율”은 49.7%로 집계됩니다.<sup>vii</sup>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21%가 개인주택 또는 아파트 입주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 가족 수용도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사십사 퍼센트(44%)가 가족 수용도를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상당히 커다란 수치입니다. 가족의 수용을 받은 이러한 응답자는 차별에 직면하는 경우가 훨씬 적었습니다.
- 가족의 수용을 받지 못한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는 35%가 자살을 시도한 데 비해, 가족의 수용을 받은 이들은 17%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 가족의 수용을 받지 못한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는 20%가 노숙을 경험한 적이 있는 데 비해, 가족의 수용을 받은 이들은 9%가 노숙을 경험했습니다.
- 가족의 수용을 받지 못한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는 6.38%가 HIV 양성 반응을 보인 데 비해, 가족의 수용을 받은 이들은 2.78%가 HIV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로 막대 그래프



## 건강 관리

- 건강에 대한 API 응답자의 답변은 일반적인 인구에 비해 높은 비율의 HIV 감염, 흡연, 마약 및 알코올 중독, 자살 시도 등을 포함하여 사회 경제적 소외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십팔 퍼센트(18%)가 편견 때문에 병원 진료를 거부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사십칠 퍼센트(47%)가 차별이 두려워 아프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진료를 미룬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사십삼 퍼센트(43%)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비해 모든 인종의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경우 41%를, 일반적인 미국 인구의 경우 1.6%를 보였습니다.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는 상당수가 HIV를 앓고 있습니다. 4.76%가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추가적으로 10.48%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다른 범주와 비교하면 모든 인종의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의 경우 그 비율이 2.64%이며 일반적인 API 인구의 경우는 0.01%이고 일반적인 미국 인구의 경우는 0.60%입니다.<sup>viii</sup>
- API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는 진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은 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API 트랜스젠더가 이전의 진료에 의존하여 다른 형태의 과도기적 의료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방법론에 대한 참고사항

전국 트랜스젠더 차별 설문조사는 전국 동성애자 대책 위원회와 트랜스젠더 평등을 위한 전국 센터에서 작성하여 실시했습니다. 800개 이상의 트랜스젠더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트랜스젠더가 운영하는 트랜스젠더 지지 및 서비스 기관, 지원 그룹, 리스트 제공 서비스 업체 및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온라인 NTDS 설문조사 도구에 대한 링크를 배포했습니다. 거의 2,000부의 설문조사지를 접촉이 힘든 트랜스젠더 및 성 비순응자에게 배포했습니다. 작성을 마친 설문조사지 총 6,456부가 최종 데이터 세트 작성에 사용되었고, API 또는 복합인종 API가 이 중 212부를 제출했습니다.

NTDS는 두 가지 언어, 즉 영어와 스페인어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API 미국인의 거의 80%가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고 36%는 자신이 영어를 “씩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sup>ix</sup> 유감스럽게도 그 결과 NTDS는 대부분의 API 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여기에 제시된 조사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에 사용할 접근이 용이한 개선된 설문조사에 대한 필요가 과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 주체인 우리가 충분한 수의 API 응답자로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을 했다고 자부할지라도, 우리의 데이터 세트를 확대하고 인종별로 분리함으로써 많으면서 다양한 아시아계 미국인, 남아시아인, 동남아시아인, 태평양 제도민 커뮤니티의 그룹에 가해지는 차별의 미세한 차이를 밝혀낼 수 있다면 개별 커뮤니티 경험의 특수성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i 이 보고서의 일부 숫자는 NTDS 데이터를 기초로 한 다른 보고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고서들은 응답자에서 순수 API와 복합인종 API를 구별하여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복합인종 API 응답자는 일반 복합인종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순수 API와 복합인종 응답자를 합산했습니다.

ii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Washington, DC: GPO, 2008).

iii The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HIV/AIDS Policy Fact Sheet: Latinos and HIV/AIDS” (2006): <http://www.kff.org/hiv/aids/upload/6007-03.pdf>;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2010: A Global View of HIV Infection” (2010): [http://www.unaids.org/documents/20101123\\_2010\\_HIV\\_Prevalence\\_Map\\_em.pdf](http://www.unaids.org/documents/20101123_2010_HIV_Prevalence_Map_em.pdf)

iv 월 퍼센트(7%)는 설문조사지를 작성하면서 설문조사가 실시하던 6개월 동안 일반적인 인구에 대해 반응했던 평균 실업률입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계절별로 조정하지 않은 실업률을 참조하십시오.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Employment Situation: September 2008,” (2008): <http://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st10032008.htm>.

v United States Conference of Mayors, “Hunger and Homelessness Survey” (2006): 48, <http://usmayors.org/hungersurvey/2006/report06.pdf>.

vi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U.S. Housing Market Conditions, 2nd Quarter, 2009” (Washington, DC: GPO, 2009): [http://www.huduser.org/portal/periodicals/ushmc/summer09/nat\\_data.pdf](http://www.huduser.org/portal/periodicals/ushmc/summer09/nat_data.pdf).

vii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U.S. Housing Market Conditions, 2nd Quarter, 2009” (Washington, DC: GPO, 2009): [http://www.huduser.org/portal/periodicals/ushmc/summer09/nat\\_data.pdf](http://www.huduser.org/portal/periodicals/ushmc/summer09/nat_data.pdf). HUD did not define “minority” in this report.

viii The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HIV/AIDS Policy Fact Sheet: Latinos and HIV/AIDS” (2006): <http://www.kff.org/hiv/aids/upload/6007-03.pdf>;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2010: A Global View of HIV Infection” (2010): [http://www.unaids.org/documents/20101123\\_2010\\_HIV\\_Prevalence\\_Map\\_em.pdf](http://www.unaids.org/documents/20101123_2010_HIV_Prevalence_Map_em.pdf)

ix U.S. Census Bureau, “Selected Population Profile in the United States – 2010 American Community Survey 1-Year Estimates” (2011): <http://factfinder2.census.gov/faces/tableservices/jsf/pages/productview.xhtml?src=bkmk>

보고서 전문과 자세한 참고사항은 [www.TheTaskForce.org](http://www.TheTaskForce.org) or [www.TransEquality.org](http://www.TransEquality.org)를 참조하십시오.(참조: [http://www.thetaskforce.org/reports\\_and\\_research/ntds](http://www.thetaskforce.org/reports_and_research/ntds) 또는 <http://transequality.org/Resources/index.html>).